

碩士學位論文

일본어 조건표현 「なら」의
의미·용법 고찰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康 允 榮

2008年 8月

일본어 조건표현 「なら」의 의미·용법 고찰

指導教授 金 勝 漢

康 允 榮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康允榮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8年 8月

<국문초록>

일본어 조건표현 「なら」의 의미·용법고찰

강 윤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승 한

일본어의 조건을 나타내는 형식에는 「たら, と, ば, なら」가 있다. 이들은 각각 고유의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용법으로 사용 되고 있어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 네 가지 조건표현을 한국어의 「~면」에 대응시킴으로써 학습자에게 있어서 일본어의 조건표현은 매우 혼란스러운 학습항목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なら」조건형은 상대방의 발언이나 상황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たら, と, ば」구문과는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なら」만의 고유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なら」의 중심의미를 밝히고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なら」의 접속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가정조건문과 반사실 조건문을 중심으로 「なら」의 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여기에서는 「なら」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적격문이 되지만, 다른 조건표현 「たら, と, 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문이 되는 경우를 통해 「なら」만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なら」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なら」의 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なら」는 동사, Ⅰ형용사, Ⅱ형용사, 「명사+だ」, 격조사의 「ル형」과 「夕형」에 각각 접속이 가능하다. 단, Ⅱ형용사, 「명사+だ」의 「ル형」에 「나

ら」가 접속할 경우에는 ナ형용사의 어간에 접속하며, 「명사+だ」에서는 조동사 だ를 생략하고 접속한다. 또한 「なら」에 「夕형」이 접속하는 형태는 「たら, と, ば」조건문에서는 볼 수 없는 「なら」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なら」의 의미 용법에 있어서, 「なら」는 「たら, と, ば」와 같은 조건문이지만, 상대의 발언 혹은 상대의 모습이나 상황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청자측 정보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반사실 조건문은 현실과 반대가 되는 사항을 전건으로 하여, 후건에 유감, 후회, 원망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なら」는 사실인 사항을 전건으로 하는 반사실 조건문을 나타낼 수 있었다.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은 「たら, と, ば」구문에는 없는 「なら」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간적 특징에 있어서 「なら」는 전건과 후건의 시간적 관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たら, と, ば」구문은 항상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내지만, 「なら」는 「전건 → 후건」뿐만 아니라,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4) 「なら」의 고유용법과 제약에 있어서, 「なら」는 후건이 전건에 선행하는 조건문과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건의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고 시간관계가 「후건 → 전건」이며, 후건의 의미가 명령일 경우 「なら」를 「たら, と, ば」로 바꾸어 쓰면 비문이 되거나, 원래의 의미와 달라진다. 「どうせ~なら」의 구문에서 「なら」대신 「たら, と, ば」를 쓰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조건문과 전건·후건 모두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는 사실 조건문에서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연구	2
II. 「なら」의 접속 형태와 문말표현	5
2.1 「なら」의 접속형태	5
2.2 「なら」의 문말표현	8
III. 「なら」의 의미 및 용법	11
3.1. 가정조건	11
3.2. 반사실 조건	15
3.3. 「なら」구문의 시간 관계	17
3.4. ~なら/~のなら	23
IV. 「なら」구문의 특징	27
4.1 「なら」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	27
4.2 「なら」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문	31
V.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8

I. 서론

1.1 연구목적

조건이란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 다른 사항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일본어에는 이러한 조건을 나타내는 형식에 「たら, と, ば, なら」가 있다. 이들은 각각 고유한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 네 가지 조건표현을 한국어의 「~면」에 대응시키고 있어 학습자들은 일본어의 조건표현을 매우 혼란스러운 학습항목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 (1) 午後になったら、散歩に行きましょう。
(오후가 되면 산책하러 갑시다.)
- (2) 3月後半になると、桜が咲き始めます。
(3월 후반이 되면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 (3) 品がよくて安ければ、よく売れます。
(물건이 좋고 싸면 잘 팔립니다.)
- (4) もしスーパーへ行くのなら、しょうゆを買ってきて。

(만약 슈퍼에 가면 간장을 사 와라.)

(日本語教育事典, p.165)

(1)~(4)는 「たら, と, ば, なら」를 사용한 조건문이다. 그러나 이 중 「なら」는 (5)와 같이 「たら, と, ば」구문과는 다른 고유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5) A : 今忙しいんです。さっさとご用件を。

B : a. 忙しいならいい。

(派遣の品格)

b.*忙しかったらいい。

c.*忙しいといい。

d.*忙しければいい。

(5)는 상대방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조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なら」를 사용하면 (5a)와 같이 적격문이 되지만, 그 이외의 「たら, と, ば」을 사용하면 (5b), (5c), (5d) 와 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なら」만의 고유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중심의미를 밝히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なら」의 접속형태와 문말표현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가정조건문과 반사실 조건문을 중심으로 「なら」의 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なら」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적격문이 되지만, 다른 조건표현 「と, ば, たら」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문이 되는 경우를 통해 「なら」만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なら」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なら」의 제약에 대해 알아보겠다.

「なら」의 용법을 고찰하는데 필요한 예문은 일본 드라마 시나리오와 신문 등에서 발췌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문은 문형사전 및 문법서의 예문과 다른 논문의 예문을 재인용하였다.

1.2 선행연구

「なら」조건문은 たら, ば, と 등의 조건문과는 달리 청자(聞き手)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久野暲¹⁾는 「S1 なら S2」의 문장에서

- 1) 話し手は、S1を聞き手（あるいは人一般）の断定として、完全に同意しないまま（すなわち自分自身は、その否定に対する判断を下ろさずに）提出する。
(화자는 S1을 청자(혹은 일반인)의 단정으로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채 (즉 자기 자신은 그 부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제출한다.)

라고 함으로써 「聞き手の断定(청자의 단정)」을 중심으로 「なら」의 용법에 대해

1) 久野暲(1973), 「日本語文法研究」, 大修館書店, p.108

설명하였다.

蓮沼昭子²⁾는 「なら」의 용법을 「PナラQ」의 문장에서

ナラⅠ- Pに他者の意向・主張が関与する場合

(P에 타자의 의향 · 주장이 관여하는 경우)

ナラⅡ- Pに他者の意向・主張が関与しない場合

(P에 타자의 의향 · 주장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로 구분하여 「なら」의 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久野의 연구가 「聞き手の断定(청자의 단정)」을 나타내는 용법에 치우쳐 있었던 것에 대해 蓮沼의 연구는 久野에서 다루지 않았던 용법 즉, 「他者の意向・主張が関与しない場合」까지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他者の意向・主張が関与する場合のナラ(「ナラ1」)は、他者(典型的には聞き手)の意向・主張と、それを根拠とする話し手の発話意図(決意、判断、要求など)の関係づけを行うのをその原型的用法に持つ。

(타자의 의향 · 주장이 관여하는 경우의 나라는 타자(전형적으로 청자)의 의향 · 주장과 그것을 근거로하는 화자의 발화 의도(결의, 판단, 요구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그 원형적 용법으로 갖는다.

라고 함으로써 「なら」 구문의 문말 표현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鈴木義和는 「なら」의 기능을 「ある状況を設定すること」이라고 정의하고³⁾ 「たら, と, ば」와 「なら」를 구분하려고 하였다. 또한 「なら」 구문의 시간 관계의 특징에 대해

「前句に時の分化があり、前句事態成立の時は、前句述語の時制辞によって、基準時より前か後かが決まる。その基準時は、発話の現在が基準時になる場合(絶対テンス)と後句事態成立の時間が基準時になる場合(相対テンス)と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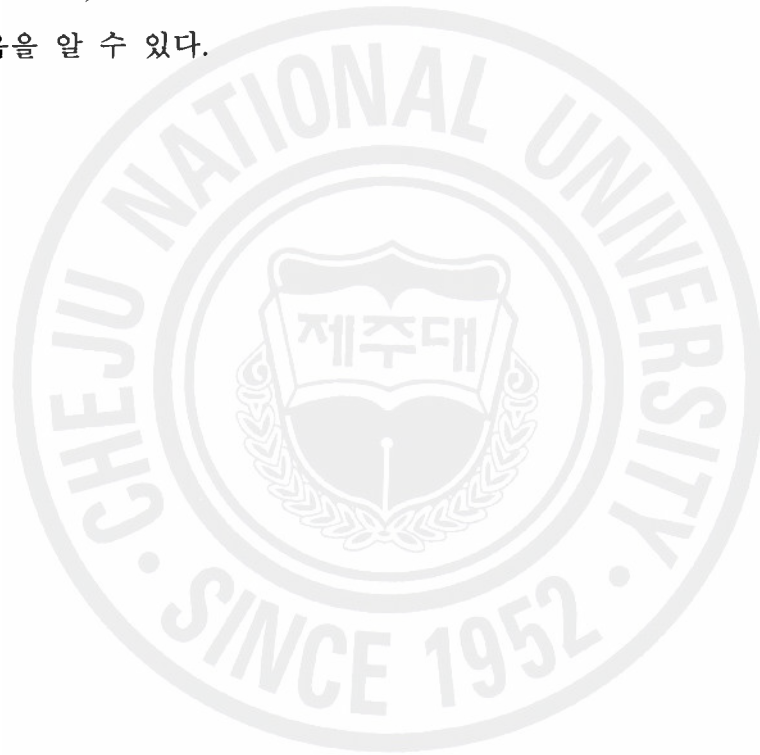
2) 蓮沼昭子(1985), 「「ナラ」と「トスレバ」」 『日本語教育』, 日本語教育学会, p.68

3) 鈴木義和 (1993), 「ナラ条件文の意味」 益岡隆志編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p.134

전구에 때의 분화가 있고, 전구사항성립 시기는 전구술어의 시제사에 의해 기준 시보다 앞인지 뒤인지 결정된다. 그 기준시는 발화의 현재가 기준시가 되는 경우(絶対テンス) 와 후구사항성립의 때가 기준시에 있는 경우(相對テンス)가 있다.

라 기술하고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 뿐만 아니라,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なら」는 「聞き手の断定(청자의 단정)」을 중심으로 한 용법과 그에 따른 문말 표현, 그리고 「なら」구문의 시간관계를 중심으로 그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II. 「なら」의 접속형태와 문말 표현

II에서는 「なら」가 접속하는 형태와 문말표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1 「なら」의 접속 형태

2.1.1 활용어+「なら」

먼저 활용어에 접속하는 「なら」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社員は使えないのでいりません。増員するなら、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いたします。 (派遣の品格)
- (7) 夏休みの読書感想文の宿題、いま出してくれたなら、あっという間に書き上げられるのに。 (朝日新聞 2007.04.05)
- (8) 燃料が高いなら出ない方がいい (朝日新聞 2008.05.09)
- (9) いずれにせよ、この戦争がなかったなら父と母の出会いもなく、私が .. (朝日新聞 2007.11.02)
- (10) 音楽好きならわかるでしょう! (のだめカンタービレ)
- (11) その偉大さゆえ「あと少し、ハンサムだったなら...」と残念です。 (朝日新聞 2008.05.20)
- (12) ちょっと待って---!俺がハエなら、あなたは電信柱だ! (派遣の品格)
- (13) 我々の活動がきっかけだったならうれしい (朝日新聞 2008.05.05)
- (14) もし都合が付くのなら、金座で君の本社転勤祝をやろうと思うんだが。 (派遣の品格)
- (15) A: 今忙しいんです。さっさとご用件を。
B: 忙しいんならいい。 (派遣の品格)

「なら」는 (6), (7)와 같이 동사의 「ル형」과 「タ형」에 접속한다. 그리고 이형용사인 경우에도 (8), (9)와 같이 「ル형」과 「タ형」에 접속한다. 그러나 ナ형용사인 경우에는 (10), (11)과 같이 「ル형」의 어간과 「タ형」에 각각 접속한다.

또한 「なら」가 「명사+だ」의 「ル형」에 접속할 경우는 (12)처럼 「だ」가 생략되고 명사에 접속하게 된다. 그러나 「なら」가 「명사+だ」의 「タ형」에 접속할 경우는 (13)처럼 「だ」가 생략 되지 않고 「だった」에 접속하게 된다. (14), (15)는 「なら」가 형식명사 「の(ん)」에 접속하는 예이다.

또한 (7), (9), (11), (13)처럼 전건의 술어 「タ형」에 접속하여 「タ+なら」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たら, ば, と」구문에서는 볼 수 없는 「なら」만이 갖는 특징이다. 또한 (10), (12)처럼 ナ형용사의 어간과 명사에 접속하는 것과 (14), (15)처럼 형식명사 「の(ん)」에 접속하는 것도 「なら」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조사+ 「なら」

2.1.2에서는 「なら」가 격조사에 접속하는 형태를 알아보겠다.

- (16) 友人になら手輕にメールを書けても、仕事の報告書など改まった文書や、目上の人への便りはまた別物だ。 (朝日新聞 2007.03.22)
- (17) A : すみません。ちょっと第二会議室を使わせてもらえませんか。
B : 2時半までならいいですよ。その後は使う予定があるけれど。 (派遣の品格)
- (18) 県内からなら、京都への日帰りが楽になった。 (朝日新聞 2008.04.30)
- (19) お付き合いを続ける中で、本当にこの人となら永い人生を一緒に歩んでいけると確信し、(省略) (朝日新聞 2007.04.04)
- (20) 家でなら熱々の飯に小柱と醤油、おろしわさび、刻みのりを混ぜる「貝柱飯」が一番。 (朝日新聞 2008.05.09)

「なら」는 (16)~(20)에서처럼 격조사 「に, まで, から, と, で」에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격조사 「が, を, へ, より」에 접속하는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

(6~20)을 통해 「なら」는 활용어뿐만 아니라, 명사 조사 등 다양한 단어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なら」의 접속 형태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어 보면 <표-1>과 같다.

나라의 접속형태 <표-1>

품사의 종류	접속형태	예
동사	ル+なら	するなら
	タ+なら	くれたなら
い형용사	ル+なら	高いなら
	タ+なら	なかったなら
な형용사	~だ+なら	好きなら
	タ+なら	ハンサムだったなら
명사+だ	~だ+なら	ハエなら
	タ+なら	きっかけだったなら
격조사	ニ・マデ・カラ・ト・デ+なら	になら, までなら, からなら, となら, でなら
	ガ・ヲ・ヘ・ヨリ (×)	

2.2. 「なら」의 문말표현

2.2.1 확인 · 부정

- (21) 金属加工の専門家なら容易に想像出来る。 (ガリレオ)
(22) 君が僕のゼミの学生なら間違いなく評価はDだ。 (ガリレオ)
(23) 複数球団による指名も予想される中、「プロでやれるなら球団は関係ない」としている。
(朝日新聞 2008.03.22)

(21), (22)의 문말표현 「~来る·~Dだ」는 확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23)은 문말표현이 「~ない」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2.2.2 명령

- (24) こんな事件さっさと解決してよ!! お母さんが犯人なら、すぐに捕まえて! (ガリレオ)
(25) どうしても楽譜を見て弾けないなら、自慢の耳で覚えきれ。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6) よし、そこまで行くなら聞かせてみろ。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4)~(26)은 「捕まえて, 覚えきれ, みろ」와 같이 「なら」의 문말표현이 명령인 경우이다.

2.2.3 금지 · 허가

- (27) 文句があるなら食うな。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8) 少しなら教えてやってもいいけど。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9) ま、別に、上手くなりたくないなら今のままでもいいが。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7)의 「~な」는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28), (29)의 「~でもいい·~でもいい」는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2.2.4 의뢰

(30) 勤務態度に不満があるならその旨、マネージャーの一ツ木さんにお伝え下さい。

(派遣の品格)

(30)의 「下さい」는 의뢰를 나타내는 문말 표현이다.

2.2.5 당위

(31) 「テレビに出ると聞いてびっくりした。どういう気持ちかは分からないが、人命が失われているのは深く受け止めるべきだ。テレビに出るなら他の取材も受けるべきだ」と話した。

(朝日新聞 2007.10.05)

(31)의 「~べきだ」는 당위를 나타내는 문말 표현이다.

2.2.6 권유·의지

(32) でもそれで、父親がお金を稼いで喜んでくれるなら、自分も嘘に付き合おう。

(ガリレオ)

(33) まだ、スクラップされてないなら希望持とう。

(派遣の品格)

(32) 「付き合おう」의 「~う」는 권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33) 「持とう」의 「~う」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2.2.7 희망

(34) だからもし、今回の事件に犯人がいるなら、どうしても捕まえたいんです!

(ガリレオ)

(35) 長塚さんから連絡があったんですよ。繰るなら前の日にしてほしいって。

(ガリレオ)

(34)의 「~たい」, (35)의 「~てほしい」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2.2.8 개언(概言)

- (36) そんな演奏が出来たならそれは世界のマエストロと呼ばれるよりもずっと幸せなことかもしれない。
(のだめカンタービレ)
- (37) 音楽好きならわかるでしょう!
(のだめカンタービレ)

(36), (37)의 「~かもしれない」, 「~でしょう」는 개언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2.9 의문

- (38) 学費の為に練習する暇がないなら、大学に行く意味があるのか? (のだめカンタービレ)
- (39) 取材陣に「女性問題と思うなら「すべて男が悪い」でいいじゃないですか。
(朝日新聞, 2007.10.05)

(38)의 「あるのか」, (39)의 「じゃないですか」는 의문을 나타내는 문말표현이다.

(21)~(39)와 같이 「なら」의 문말 표현에는 확인·부정, 명령, 금지·허가, 의뢰, 당위, 권유·의지, 희망 등 다양한 표현이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なら」의 의미 및 용법

「なら」는 「たら, と, ば」구문과는 다른 고유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Ⅲ에서는 이러한 「なら」의 고유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1과 3.2를 통해 가정조건문과 반사실 조건문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또한 「たら, と, ば」구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문이 되지만 「なら」구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적격문이 되는 예문들을 통해 「なら」의 고유 용법을 고찰해 보겠다.

3.1 가정조건

「なら」조건문의 용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益岡·田窪⁴⁾에서는 조건문은 「ある事態と別の事態との依存関係を表わす(어떠한 사태와 또 다른 사태와의 의존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였으며, 田中寛⁵⁾에서는 조건문은 「後件(主節)で表される事態の成立が前件(条件節)で表される事態の成立に依存し、かつ、前件が非現実の事態を表すもの(후건(주절)에서 나타나는 사항의 성립이 전건(조건절)에서 나타나는 사항의 성립에 의존하며, 또한 전건이 비현실의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결과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사항을 예측하는 표현을 조건이라고 하며, 이 때 전건⁶⁾과 후건은 인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문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日本語教育事典의 분류를 따라 가정조건(仮定条件), 반사실조건(反事実条件), 일반조건(一般条件), 사실조건(事実条件)으로 구분하였다.⁷⁾

4) 益岡·田窪(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192

5) 田中寛(1994), 「条件表現と基本文型」, 「日本語学」, 明治書院, p.61

6) 조건을 나타내는 구문의 앞부분을 전건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후건이라고 한다.

3.1에서는 이러한 조건표현 중 가정조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 (40) のだめは卒業したら幼稚園の先生になるつもりです！ (のだめカンタービレ)
(41) 東電では、真夏日に気温が1度上がると、電力需要が約170万キロワット伸びる。
(朝日新聞 2007.09.21)
(42) 「彼女が困れば弟の村瀬君も困る。 (ガリレオ)
(43) 勤務態度に不満があるならその旨、マネージャーの一ツ木さんにお伝え下さい。
(派遣の品格)

(40)의 전건 「卒業したら」과 후건 「幼稚園の先生になるつもりです。」는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실현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졸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卒業したら」이라고 가정하고 그 이후의 의지 「幼稚園の先生になるつもりです」를 나타내고 있다. (41)~(43)도 이와 같다. (41)은 「気温が1度上がると」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결과 「電力需要が約170万キロワット伸びる」를 나타내며, (42)에서는 전건 「彼女が困れば」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일어나는 결과 「弟の村瀬君も困る」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43)은 「勤務態度に不満がある」이라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 취해야 할 행동 「マネージャーの一ツ木さんにお伝え下さい」을 나타내고 있다.

(40)~(43)에서 전건과 후건은 모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건을 나타내는 전건과 후건에서 서술하는 내용이 모두 미실현 사항인 것을 가정조건이라고 한다. 즉 전건과 후건 모두 「발화시점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경우를 나타낸다. (40)~(43)은 모두 어떠한 사항의 성립을 임시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가정 조건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7) 日本語教育学会編(2006),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p. 165
条件を表す基本形式「ば」、「と」、「たら」、「なら」は、(1)仮定条件、(2)反事実条件、(3)一般条件、(4)事実条件のような条件文を表す。

3.1.1 청자측 정보⁸⁾

3.1.1에서는 가정 조건 표현 중 「たら, と, ば」에는 없는 「なら」만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 (44) A : 明日のコンサートに行くことにしたよ。
B : あなたが行くなら, 私も行くわ。 (条件表現 p.146)
- (45) A : 私は間違ったことは言っていない。
B : 間違っていないなら, 証拠を見せなさい。 (ガリレオ)
- (46) A : 今忙しいんです。さっさとご用件を。
B : 忙しいんならいい。 (派遣の品格)

(44)~(46)은 모두 대화상에서 상대가 발언을 한 후, 그것을 그대로 조건으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44)에서는 A가 「明日のコンサートに行くことにした。」라고 발언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 「あなたが行くなら」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45) 또한 「私は間違ったことは言っていない。」는 발언을 받아 「間違っていないなら」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46)에서는 「今忙しいんです。」라는 발언을 그대로 받아 「忙しいんなら」의 가정을 하고 있다.

(44)~(46)과 같이 「なら」에는 회화 중에 상대방의 발언을 받아 그대로 전건으로 표현하는 용법이 있다.

- (44') A : 明日のコンサートに行くことにしたよ。
B : あなたが行くというなら, 私も行くわ。
- (45') A : 私は間違ったことは言っていない。
B : 間違っていないというなら, 証拠を見せなさい。
- (46') A : 今忙しいんです。さっさとご用件を。
B : 忙しいというならいい。

상대의 발화를 받아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44'~46')과 같이 「なら」 앞에 인용표현 「という」를 넣어도 전체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8) 久野(1973)는 「聞き手の断定」, 蓮沼(1985)는 「聞き手の気持」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다음의 (47), (48)은 상대방의 발언을 가정한다고 할 수 없다.

(47) 大前春子のいきつけの定食屋で昼食をとる東海林と賢介。

東海林の後方には春子が一人で食事をしている。

「大前さんに話があるならしてくれれば?」と賢介。

(派遣の品格)

(48) (主任の顔に傷が付いているのを見て)

「主任、顔の傷が痛むなら、診療室へ。」と春子。

(派遣の品格)

(47), (48)을 살펴보면, (47)에서는 東海林의 행동을 보고 賢介가 추측할 수 있는 있는 상황 「大前さんに話があるなら」이라는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견에는 그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상대에 대한 권유 「話をしてくれれば?」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48)에서는 상처가 난 주임의 얼굴을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 「顔の傷が痛むなら」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견에서 상대에게 「診療室へ」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

(47), (48) 처럼 「なら」는 상대의 모습·태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근거로 상대에 대한 권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44)~(46)과 같이 상대방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가정하거나, (47)~(48)과 같이 상대방의 발언이나 모습·태도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표현은 「なら」만이 갖는 가정조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4)~(48)의 전건 「あなたが行くなら」, 「間違っていないなら」, 「忙しいのなら」, 「大前さんに話があるなら」, 「顔の傷が痛むなら」은 모두 아직 실현 되지 않은 미실현 사항이다. 미실현 사항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40)~(43)의 가정조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4)~(48)에서는 미실현 사항에 대한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단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확정적인 사항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44)의 「明日のコンサートに行く」는 상대방이 단정한 것이므로, 100퍼센트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항이다. 따라서 「あなたが行くなら」이라는 조건

은 확정적인 사항에 대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3.2 반사실 조건

반사실 조건문⁹⁾은 사실이 아닌 전건을 사실로 가정하여 후건에 화자의 후회, 원망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3.2.1 전건이 사실이 아닌 반사실 조건

다음의 (49)~(51)은 반사실 조건문을 나타내는 예이다.

- (49) 夏休みの読書感想文の宿題、いま出してくれたなら、あつという間に書き上げられるのに。
(朝日新聞 2007.04.05)
- (50) あと1000円あれば、このコートが買えるのに。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 (51) 運転手の米川政博さん(58)は「帰りのお客さんは「もっと高くからなら、よく見られたのに」と話していた」
(朝日新聞 2008.4.26)

(49)의 전건 「いま出してくれた」와 후건 「あつという間に書き上げられるのに」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름방학 숙제를 지금 내주었다면 순식간에 썼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다 쓰지 못했다。」라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0)에서 「あと1000円あれば」하는 것도 실제로는 천엔이 부족하지만 만약 있었다면 「このコートが買える」라는 유감의 표현을 후건에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51)의 전건 「もっと高くからなら」역시 사실이 아니다. 「만약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다면 보였을 것이다。」라는 유감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49)~(51)처럼 전건이 사실이 아닌 반사실 조건은 「たら, ば, なら」의 구문에서 나타나며 「と」는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9) 日本語教育学会編(2006),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 165
条件・結果ともに、成立しなかったできごと、つまり事実と反する事態である反事実条件がある。「ば、と、なら」が使われる。現実にはありえない事態間の関係を表す反事実条件は、条件文独自の用法といえる。(中略) なお「なら」には条件が事実である場合もある。

- (52) あの人の前で自分をさらけ出すことができたなら、今、こうして悩むことはないのに。
(派遣の品格)
- (53) (風で当たり取れず)せめて昨日の天気が今日であったならオデコの人も出ないで終れ
たものを。
(派遣の品格)
- (54) きみが15世紀の人なら、ガリレオみたいに歴史に名前が残ってたところだよ。(ガリレオ)

반사실 조건문은 사실이 아닌 전건을 사실로 가정하여 후건에 화자의 후회, 원망(怨望)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말에는 (52)~(54)와 같이 「~のに, ~たものを, たところだ」 등과 같은 반사실적 서술, 판단, 후회 등의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3.2.2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

(55)~(58)은 3.2.1에서 살펴본 반사실 조건문과는 조금 다르다.

- (55) A : 先週風邪で、三日も寝込んでしまった。
B : 病気だったのなら、お見舞いに行っておあげたのに。(条件表現 p.62)
- (56) A : 君が部屋を訪ねてくれた時には、田舎から母親が来ていたんだ。それであんな冷たい態度をとってしまった。
B : お母さんがいらっしやっていたなら、なぜあの時言ってくれなかったの。わたし、あのあと、何日も暗い気持で過ごしていたのよ。(条件表現 p.62)
- (57) 子どものクリスマスプレゼントを買ってあるなら、商品券を買わなくてもよかったのに。
- (58) 野村監督は「満塁策といっているのに」「勝負させてくれ」と言ってきて打たれた。こっちは50年のキャリアで言っとる。1、2年の選手が何を言うか」と酷評したが、そこまで言うなら敬遠を徹底すべきだった。 ... (朝日新聞 2008.04.15)

(55)에서 전건 「病気だった」는 3.2.1에서 살펴본 반사실 조건문과 달리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후건 「お見舞いに行っておあげた」는 사실이 아니다. 즉 「(Aは) 病気だった。でも(知らなかったため) お見舞いに行っておあげなかった。」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56) 또한 전건 「お母さんがいらっしやっていた」는 사실을 나타내며, 후건 「あの時言ってくれる」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お母さんがいらっしや

いた。でも、あの時言ってくれなかった。」라는 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7), (58)역시 각각 (57) 전건 「子どものクリスマスプレゼントを買ってある」, (58) 전건 「そこまでいう」가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이다.

(55)~(58) 에서처럼 「なら」는 전건이 사실이고 후건이 사실에 반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반사실 조건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의 반사실 조건문은 사실인 전건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거나, 전건이 일어나기 전에 취했어야 할 행동을 후건에 나타낸다. 이러한 용법은 「たら, と, ば」구문에는 없는 「なら」만의 특징이다.

(59) どうせ落第するなら、あんなに努力するんじやなかつた。 (条件表現 p.61)

(60) こんなにすぐに財布が見つかるなら、警察に紛失届けをするんじやなかつた。 (条件表現 p.61)

(61) きほどのコストがかからないなら、さくやくほみをつけるなどより安全な設計をすべきだった」と設計上の問題点を指摘。 (朝日新聞 2008.02.22)

(59)~(61)과 같이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전건에 「どうせ」, 「こんなに」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나며, 후건에는 「のに」를 비롯한 「~するんじやなかつた」, 「~すべきだった」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¹⁰⁾

3.3 「なら」구문의 시간 관계

3.3에서는 일반적 조건문의 시간관계를 살펴 본 후 「なら」에서만 볼 수 있는 시간 관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3.3.1 「전건 → 후건」

먼저 가정조건문 중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

10) 有田節子・前田直子・蓮沼小(2001), 「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p.61

펴보기로 하겠다. 다음의 (40)~(43)은 3.1에서 살펴보았듯이 「たら, と, ば, なら」 구문을 사용한 가정 조건문이다.

- (62) のだめは卒業したら幼稚園の先生になるつもりです! (のだめカンタービレ)
(63) 東電では、真夏日に気温が1度上がると、電力需要が約170万キロワット伸びる。
(朝日新聞 2007.09.21)
(64) 「彼女が困れば弟の村瀬君も困る。 (ガリレオ)
(65) 勤務態度に不満があるならその旨、マネージャーの一ツ木さんにお伝え下さい。
(派遣の品格)

(62)는 「졸업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될 계획입니다。」의 의미로 이때의 시간관계를 살펴보면, 전건 「卒業する」 → 후건 「先生になる」이다. (63)~(64)도 각각 (63) 전건 「真夏日に気温が1度上がる」 → 후건 「電力需要が約170万キロワット伸びる」, (64)전건 「彼女が困る」 → 후건 「弟の村瀬君も困る」, (65) 전건 「勤務態度に不満がある」 → 후건 「マネージャーの一ツ木さんに伝える」의 시간관계임을 알 수 있다.

(62)~(65)와 같이 「たら, と, ば, なら」 구문을 사용한 가정 조건문은 일반적으로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낸다.

반사실 조건문 중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66) 夏休みの読書感想文の宿題、いま出してくれたなら、あつという間に書き上げられるのに。
(朝日新聞 2007.04.05)
(67) あと1000円あれば、このコートが買えるのに。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p223)

(66), (67)은 3.2.1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건과 후건이 모두 사실이 아닌 반사실 조건문이다. (66), (67)의 시간 관계를 살펴보면 각각 (66)전건 「いま出してくれる」 → 후건 「あつという間に書き上げられる」, (67) 전건 「あと1000円ある」 → 후건 「このコートが買える」를 나타내고 있다. (66), (67)과 같이 전건과 후건이 모두 사실이 아닌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낸다.

2.2.2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의 (68, 69)은 반사실 조건문 중 전건이 사실인 경우이다.

(68) A : 先週風邪で、三日も寝込んでしまった。

B : 病気だったのなら、お見舞いに行ってあげたのに。 (条件表現 p.62)

(69) A : 君が部屋を訪ねてくれた時には、田舎から母親が来ていたんだ。それであんな冷たい態度をとってしまった。

B : お母さんがいらっやっていたのなら、なぜあの時言ってくれなかったの。わたし、あのあと、何日も暗い気持ちで過ごしていたのよ。 (条件表現 p.62)

(68), (69)의 시간관계를 살펴보면, ㄹ 각각 (68)에서는 전건 「病気だった」 → 후건 「お見舞いに行ってあげた」, (69)에서는 전건 「お母さんがいらっやっていた」 → 후건 「あの時言ってくれなかった」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전건의 시제를 살펴보면 모두 「夕형」임을 알 수 있다.

(68), (69)과 같이 반사실 조건문 중에서 전건이 사실을 나타내고 「なら」가 「夕형」에 접속할 경우에는 「전건 → 후건」의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3.3.2 「후건 → 전건」

다음의 (62)~(64)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70) 私たちにも「本を買うならいくらでも金を使ってもいいぞ」と言ってくれた。

(朝日新聞 2007.12.2)

(71) 手術はできるだけ行わず、行うならきちんとした手術(傷も形成外科的にきれいに縫ってもらえます)を行うところを探してください。 ...

(朝日新聞 2008.1.30)

(72) 俺はコンビニに行くけどすぐ戻るから、帰るなら、鍵は開ければなしていいから。

(のだめカンタービレ)

(70)~(72)는 전건과 후건이 모두 미실현 사항인 가정 조건문이다. (70)는 「お金をたくさん使って本を買っていい。」의 의미이다. 따라서 (70)에서는 전건 「本を買

う」 → 후건 「お金を使う。」의 시간관계가 아니라, 후건 「お金を使う」 → 전건 「本を買う」의 시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71) 또한 「前もって手術を行うところを探して手術を行う。」의 의미이므로 후건 「手術を行う」 → 전건 「手術を行うところを探す」의 시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72)에서도 후건 「鍵は開けばなししておく」 → 전건 「帰る」의 시간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70)~(72)와 같이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たら, と, ば」구문에는 없는 「なら」의 독특한 용법이다.

그렇다면 「なら」를 사용한 가정 조건문에서 「후건 → 전건」의 시간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70)은 「本を買う」라는 전건을 우선 사실로 설정을 하고 그 전에 취하는 태도 「お金を使う」라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71) 또한 「手術を行う」라는 동작이 이루어지기 전에 「手術を行うところを探す」라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72)는 「帰る」라고 한다면 그 전에 취해야 할 행동 「鍵は開けばなししておく」를 후건에 나타내고 있다.

(70)~(72)와 같이 「なら」에는 상대방 또는 타인의 발언이나 상황을 조건으로 하여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사전에 취해야 할 화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용법이 있다. 따라서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반사실 조건문 중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73) どうせ落第するなら、あんなに努力するんじゃなかつた。 (条件表現, p.61)

(74) こんなにすぐに財布が見つかるなら、警察に紛失届けをするんじゃなかつた。

(条件表現, p.61)

(73), (74)는 반사실 조건문 중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이다. 시간관계를 살펴보면, (73)후건 「努力する」 → 전건 「落第する」, (74)후건 「紛失届けをす

る」 → 전건 「財布が見つかる」의 시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건의 시제는 모두 「ル형」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 중 전건이 「ル형」인 경우에는 「후건 → 전건」의 시간 관계가 나타난다.¹¹⁾

(73), (74)과 같이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은 전건이 발생하기 전에 취했던 행동에 대한 유감의 뜻을 후건에 나타낸다. 따라서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에서 「후건 → 전건」의 시간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3 전건과 후건의 시제에 따른 의미 변화

2.1에서는 なら조건문은 활용어의 ル형과 タ형에 각각 접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3.1과 3.3.2에서는 「전건 → 후건」, 「후건 → 전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なら」조건문의 시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때 전건과 후건의 시제와 「なら」의 시간적인 전후관계에 따라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인지, 만약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3.에서는 전건과 후건의 시제에 따른 의미관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75) a. アメリカに行くなら、英語を勉強するだろう。 (日本語条件表現, p.136)

(75a)는 「전건 ル형 + 후건 ル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75a)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アメリカへ行って英語を勉強するだろう。」의 의미로 「アメリカに行くこと」, 「勉強すること」 모두 미래의 일이다. 따라서 전건 「アメリカに行くこと」 → 후건 「英語を勉強すること」의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アメリカに行く予定だから、英語を勉強するだろう。」의 의미이다. 따라서 후건 「勉強すること」 → 전건 「アメリカに行くこと」의 시간관계를 보인다.

(75a)와 같이 「전건 ル형 + 후건 ル형」인 경우에는 「전건 → 후건」, 「후

11) 有田節子・前田直子・蓮沼小子(2001), 「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62p

건 → 전건」의 해석이 가능하며, 전건 후건 모두 미래 또는 현재의 일을 나타낸다.

(75)b. アメリカに行ったなら、英語を勉強するだろう。

(75b)는 「전건 타형 + 후건 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때는 「アメリカに行ったのなら、英語の大事さがわかったから、これからは英語を勉強するだろう。」와 같은 의미가 되므로 「アメリカに行くこと」은 과거의 일이고 「勉強すること」은 미래의 일이다. (75b)와 같이 전건이 「타형」이고, 후건이 「르형」인 경우 「전건 → 후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75)c. アメリカに行くなら、英語を勉強しただろう。

(75c)는 「전건 르형 + 후건 타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アメリカに行くこと」은 미래의 일을 나타내며, 「勉強すること」이 과거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来年からアメリカに留学するなら、英語を勉強して準備しただろう。」와 같은 의미가 되어 「후건 → 전건」의 시간 관계가 된다.

(75)d. アメリカに行ったなら、英語を勉強しただろう。

(75d)는 「전건 타형 + 후건 타」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건 「アメリカに行った」와 후건 「英語を勉強した」 모두 과거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 전건과 후건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했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전건 → 후건」의 시간 관계로, 「アメリカに行ったなら、アメリカで英語を勉強しただろう。」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후건→전건」의 시간관계인 경우이다. 「英語を勉強してからアメリカに行った。」의 의미가 된다.

(75a~75d)에서처럼 「전건르형 + 후건르형」, 「전건타형 + 후건 타형」인 경

우 「전건 → 후건」과 「후건 + 전건」의 시간 관계가 모두 나타나지만, 「후건
夕형 + 전건ル형」인 경우에는 「전건 → 후건」, 「전건ル형 + 후건夕형」인 경
우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가 나타난다.

3.4 なら / の(ん)なら

「なら」는 형식명사 「の(ん)」와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の(ん)なら」가 자주
사용 되는 배경에 대해 田中 寛¹²⁾는

しばしば「のなら」の形が好まれる背景になるには「～ということであれば」という話者の確認
的な意味が用意されている。

(「のなら」가 자주 나타나는 배경은 「～ということであれば」와 같은 화자의 확인을 하
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なら」에는 상대의 발언을 받아 조건으로 하는 용법
이 있으므로 이 경우 인용을 나타내는 「～という」를 첨가하여 「～というなら」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의 「～というなら」는 화자의 발언에 대해 확인하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なら」대신에 「の(ん)なら」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の(ん)なら」형식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3.4에서는
「なら」대신 「の(ん)なら」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
해서 살펴본다.

3.4.1 「なら」대신 「の(ん)なら」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76) a. 勤務態度に不満があるならその旨、マネージャーの一ツ木さんにお伝え下さい。
(派遣の品格)
- b. 勤務態度に不満があるならその旨、マネージャーの一ツ木さんにお伝え下さい。

12) 田中 寛(1994), 『日本語学』 「条件表現と基本文型」, 明治書院 p.65

(77) 春子のいきつけの定食屋で昼食をとる東海林と賢介。

東海林の後方には春子が一人で食事をしている。

a. 「大前さんに話があるならしてくれれば？」と賢介。

(派遣の品格)

b. 「大前さんに話があるのならしてくれれば？」と賢介。

(76), (77)은 각각 가정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건의 시제를 살펴보면 모두 「ル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6), (77)과 같이 가정조건을 나타내면서 전건의 시제가 「ル형」일 경우 「なら」는 「の(ん)なら」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 때 「なら」대신 「の(ん)なら」를 사용하면 의미가 더욱 강해진다.¹³⁾

다음의 (78), (79)은 3.2.2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이다.

(78) A : 君が部屋を訪ねてくれた時には、田舎から母親が来ていたんだ。それであんな冷たい態度をとってしまった。

B : a. お母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いたなら、なぜあの時言ってくれなかったの。わたし、

あのあと、何日も暗い気持ちで過ごしていたのよ。

(条件表現 p.62)

b. お母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いたのなら、なぜあの時言ってくれなかったの。わたし、

あのあと、何日も暗い気持ちで過ごしていたのよ。

(79) a. どうせ落第するなら、あんあに努力するんじゃないかった。

b. どうせ落第するのなら、あんあに努力するんじゃないかった。

(条件表現 p.61)

(78b), (79b)처럼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전건이 시제가 「タ형」인 경우와 「ル」형인 경우에 관계없이 「なら」를 「の(ん)なら」로 바꿀 수 있다.

(76), (77)와 같이 가정조건문의 경우에 전건이 「ル형」일 때에 한해서 「なら」를 「の(ん)なら」로 바꾸어 쓸 수 있었다. 한편 (78), (79)와 같이 반사실 조건문의 경우에는 전건이 「ル형」인지 「タ형」인지와 관계없이, 전건이 사실인 경우에는 「なら」를 「の(ん)なら」로 바꾸어 쓸 수 있었다.

3.4.2 「なら」대신 「の(ん)なら」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3) 有田節子・前田直子・蓮沼小子(2001), 「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p.67

3.4.2에서는 「なら」 대신 「の(ん)なら」로 바꾸었을 때 비문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다음의 (80)은 가정조건이지만, (80a)의 「なら」를 (80b)와 같이 「の(ん)なら」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 (80) a. そんな演奏が出来たなら、それは世界のマエストロと呼ばれるよりもずっと幸せなこともし
れない。 (のだめカンタービレ)
b.*そんな演奏が出来たのなら、それは世界のマエストロと呼ばれるよりもずっと幸せなことも
もしれない。

즉, (80a)는 전건이 「出来たなら」로 「なら」가 전건의 「夕형」에 접속하고 있다. (80b)와 같이 가정 조건문에서 전건이 「夕」형인 경우 「なら」를 「の(ん)なら」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¹⁴⁾

다음은 반사실 조건문 중 「なら」 대신 「の(ん)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81) a. お金があるなら、買ったのに。 (条件表現, p.59)
b.*お金があるのなら、買ったのに。
(82) a. もっと早く起きていたならきれいな朝日を見られただろう。
b.* もっと早く起きていたのならきれいな朝日を見られただろう。 (条件表現, p.59)

(81), (82)는 전건이 사실이 아닌 반사실 조건문이다. (81)의 전건 「お金がある」와 후건 「買った」는 모두 현실과 반대 되는 사항으로 「お金がなかったから買えなかった。」라는 유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82)의 전건 「もっと早く起きていた。」, 후건 「朝日を見られた。」 모두 사실이 아닌 반사실 조건문이다. (82)에서는 「早く起きられなかったから朝日を見られなかった。」라고 하는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81a), (82a)와 같이 「なら」를 사용한 반사실 조건문 중 전건과 후건이 모두 사실이 아닌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81b), (82b)처럼 「なら」를 「の(ん)なら」로 바꿀 수 없다.

14) 有田節子・前田直子・蓮沼小子(2001), 「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p.6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조건문에서는 (80)과 같이 전건이 「夕형」인 경우에 「なら」를 「の(ん)なら」로 바꿀 수 없다. 또한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81), (82)와 같이 전건과 후건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경우에 「なら」를 「の(ん)なら」로 바꾸면 비문이 되었다.



IV. 「なら」 구문의 특징

IV에서는 「なら」 만을 사용해야 적격문이 되는 경우와 「なら」 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なら」 만 쓸 수 있는 조건문

4.1에서는 「なら」 만 쓸 수 있고 「たら, と, ば」 를 쓰면 비문이 되는 조건문에 대해 알아본다.

4.1.1 칭자측 정보

다음의 (83)~(84)는 칭자측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83) A : 明日のコンサートに行くことにしたよ。

B : a. あなたが行くなら、私も行くわ。

b. *あなたが行ったら、私も行くわ。

c. *あなたが行くと、私も行くわ。

d.* あなたが行けば、私も行くわ。

(条件表現 p.146)

(84) 春子のいきつけの定食屋で昼食をとる東海林と賢介。

東海林の後方には春子が一人で食事をしている。

「a. 大前さんに話があるならしてくれれば？」と賢介。

(派遣の品格)

b.*大前さんに話があったらしてくれれば？

c.*大前さんに話があるとしてくれれば？

d.*大前さんに話があればしてくれれば？

(83)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가정하고 있으며, (84)에서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칭자측 정보

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なら」 대신 「たら, と, ば」 구문을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4.1.2 술어의 특성과 시간 관계

4.1.2에서는 전건과 후건의 술어의 특성과 시간 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なら」 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85) 社員は使えないのでいません。増員するなら、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いたします。 (派遣の品格)
- a. 増員するなら、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いたします。
b. *増員したら、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いたします。
c. *増員すると、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いたします。
d. *増員すれば、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いたします。
- (86) a. よし、そこまで行くなら聞かせてみる。 (のだめカンタービレ)
b. *よし、そこまで行くなら聞かせてみる。
c. *よし、そこまで行くなら聞かせてみる。
d. *よし、そこまで行くなら聞かせてみる。
- (87) a. やるならもっとわかりやすくやれよ。 (のだめカンタービレ)
b. *やったらもっとわかりやすくやれよ。
c. *やるともっとわかりやすくやれよ。
d. *やればもっとわかりやすくやれよ。

(85a)~(87a)에서 전건의 동사 「増員する, 行く, やる」는 모두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85a)~(87a)의 후건은 「おねがいたします, 聞かせてみる, わかりやすくやれ」와 같이 부탁 및 명령을 나타낸다. 또한 시간관계는 각각 (85) 「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する。 → 増員する」, (86) 「聞かせてみる → 行く」, (87) 「わかりやすくやる → やる」와 같이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85a)~(87a)처럼 전건의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고 시간관계가 「후건 → 전건」이면서, 후건의 의미가 명령일 경우 「なら」를 「たら, と, ば」로 바꾸어 쓰면 비문이 되거나, 원래의 의미와 달라진다. (85a)~(87a)처럼 「たら」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비문은 아니지만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가 되어 (85) 「増員してから

パソコンスキルの高い派遣をおねがいする。」, (86)「そこまで行ってから聞かせてみる。」, (87)「(だれかが)やってから、(あなたは)もっとわかりやすくやる。」와 같이 원래의 의미와 달라진다.

4.1.3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

(88), (89)는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이다.

- (88) a. どうせ落第するなら、あんなに努力するんじゃないかた。
b.*どうせ落第したら、あんなに努力するんじゃないかた。
c.* どうせ落第すると、あんなに努力するんじゃないかた。
d.* どうせ落第すれば、あんなに努力するんじゃないかた。

- (89) a. さほどのコストがかからないなら、さくやくほみをつけるなどより安全な設計をすべきだった。
(朝日新聞 2008.02.22)
b.*さほどのコストがかからなかったら、さくやくほみをつけるなどより安全な設計をすべきだった。
c.*さほどのコストがかからないと、さくやくほみをつけるなどより安全な設計をすべきだった。
d.*さほどのコストがかからなければ、さくやくほみをつけるなどより安全な設計をすべきだった。

(88a), (89a)와 같이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なら」만을 사용해야 한다. (88b), (88c), (88d)~(89b), (89c), (89d)에서와 같이 「たら, と, ば」를 사용했을 경우 비문이 된다.

4.1.4 どうせ ~なら

전건이 「どうせ~なら」의 형식인 경우 「なら」대신 「たら, と, ば」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 (90) a. どうせ患者を受け入れるなら連携したほうがいい ...
b.*どうせ患者を受け入れるたら連携したほうがいい ...
c.*どうせ患者を受け入れるば連携したほうがいい ...
d.*どうせ患者を受け入れると連携したほうがいい ... (朝日新聞 2008.05.24)
(91) a. どうせ発生するなら温室効果が低いCO₂がいい。

- b.*どうせ発生したら温室効果が低いCO₂がいい。
- c.*どうせ発生すると温室効果が低いCO₂がいい。
- d.*どうせ発生すれば温室効果が低いCO₂がい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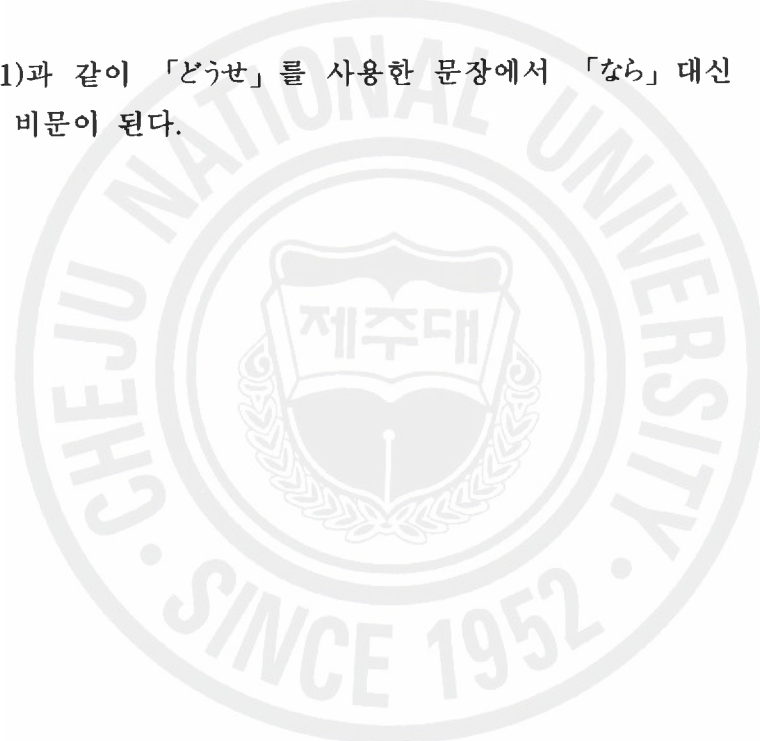
(朝日新聞 2008.05.15)

이에 대해 有田節子(2007)¹⁵⁾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既定が見込まれる言明に現れる「どうせ」が「なら」節に現れることがわかる。既定が見られる命題を表現する文に出現する「どうせ」のような副詞は「ば」節・「たら」節内部に出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

(확정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하는 「どうせ」가 「なら」절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정을 나타내는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에 사용하는 「どうせ」와 같은 부사는 「ば」절・「たら」절에는 사용할 수 없다.)

(90), (91)과 같이 「どうせ」를 사용한 문장에서 「なら」대신 「たら, と, ば」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15) 有田節子(2007) 『条件文と時制節性』くろしお出版 p.97

4.2 「なら」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문

4.2에서는 「たら, と, ば」구문을 사용하면 적격문이 되지만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는 조건문에 대해 알아본다.

4.2.1 일반 조건문¹⁶⁾

- (92) a. 春になると、あぜや田からハスが生えてくる。
b. * 春になるなら、あぜや田からハスが生えてくる。 (朝日新聞 2007.12.15)
- (93) a. しっかりと薬を飲めば完治する。
b. * しっかりと薬を飲むなら完治する。 (朝日新聞 2008.03.05)

(92), (93)은 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92), (93)의 자연현상과 같이 조건·결과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인과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조건을 일반조건이다. (92), (93)과 같이 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 「なら」를 사용하면 (92b), (93b)와 같이 비문이 된다.

久野¹⁷⁾는 「S1ならS2」에서

S1가, 起ることが確実な出来事 (例えば「夏が来る」)を表す場合には、この構文を用いることができない。
(S1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한 사건(예를 들어「여름이 오다」)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구문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지적하였다. なら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실현이나 완료를 가정하는 것이 아

16) 日本語教育事典, p165
条件・結果が特定の時点ではなく、一般的に成立する因果関係にあることを表す。
17) 久野暁 (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p.104

나라 그 사항에 관한 판단 그 자체를 가정하는 것이다. (92a)의 「春になる」라는 사항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므로 「春にならないなら」을 조건으로 하면 「春になる」는 것을 의심하는 듯한 표현이 되어 버린다.

(94) a. 毎日起きると、紅茶を一杯飲みます。

b. *毎日起きるなら、紅茶を一杯飲みます。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p.220)

(94a)는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95) a. 雪の里をどこまでも行くと、最も奥まったところに「天竺(てんじく)温泉」がある。

b. *雪の里をどこまでも行くなら、最も奥まったところに「天竺(てんじく)温泉」がある。

(朝日新聞 2008.01.25)

(96) a. アマゾンで商品を検索中に「ほしい物リストに追加する」というボタンを押すと、そのままリストが作成される。

b. *アマゾンで商品を検索中に「ほしい物リストに追加する」というボタンを押すなら、そのままリストが作成される。 (朝日新聞 2008.03.13)

(95)는 길을 설명하는 길 안내문이며, (96)은 「アマゾン」이라는 인터넷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95b), (96b)와 같이 길을 안내하거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97) a. コインロッカー代の100円を足すと計600円で、市内の施設では最も高い。

b.*コインロッカー代の100円を足すなら計600円で、市内の施設では最も高い。

(朝日新聞 2008.05.15)

(97)은 수식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97b)와 같이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95)~(97)과 같이 자연현상, 습관, 길안내, 사용법 설명, 수식 관계 등을 나타내는 일반 조건문에서는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4. 2. 2 사실조건18)

- (98) a. 研究室に足を踏み入れると、中は真っ暗。
b.* 研究室に足を踏み入れるなら、中は真っ暗。 (ガリレオ)
- (99) a. 寝てたら・・・急に体がフワっとうきあがってたんです・・・
b. *寝てたなら・・・急に体がフワっとうきあがってたんです・・・ (ガリレオ)

(98)은 「책을 읽고 있었더니 전화가 울렸다。」의 의미이다. 전건 「ドアを開ける」와 후건 「風が入ってきた」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99)은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의 의미로, 전건 「本を読んでいた」과 후건 「電話がなった」는 모두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98), (99)와 같이 전건과 후건 모두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는 조건을 사실 조건이라고 하며, 「と, たら」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조건에서는 「と, たら」 대신 「なら」를 사용하면 (98b), (99b)와 같이 비문이 된다.

18) 日本語教育事典, p165

条件となる事態もその結果も、過去1回に起ったことを示す事実条件がある。「と」や「たら」によって表され、結果が成立するきっかけとなる状況を示す。

V. 결론

일본어 조건표현 「なら」에 대해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なら」 구문의 형태적 특징은 매우 다양하였다.
 - ① 동사와 I 형용사· ナ 형용사는 「ル형」과 「 タ 형」에 접속한다.
 - ② 「명사+ だ 」, 격조사에도 각각 접속이 가능하다. 단, ナ 형용사, 「명사+ だ 」에 「なら」가 접속할 경우에는 ナ 형용사의 어간에, 「명사+ だ 」에서는 だ 를 생략하고 접속한다.
 - ③ 「 タ 형」에 「なら」가 접속하는 형태 「 た+なら 」는 「 たら, と, ば 」 조건문에서는 볼 수 없는 「なら」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なら」의 문말 표현에는 확인·부정, 명령, 금지·허가, 의뢰, 당위, 권유·의지, 희망 등 다양한 표현이 올 수 있다.
- 2) 「なら」 표현만에 나타나는 의미 용법이 있었다.
 - ① 「なら」는 「 たら, と, ば 」와 같은 조건문이지만, 상대의 발언 혹은 상대의 모습이나 상황 등의 청자측 정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なら」만의 용법이다.
 - ② 일반적으로 반사실 조건문은 현실과 반대가 되는 사항이 전건에 나타나지만, 「なら」의 반사실 조건문은 사실인 사항이 전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은 「 たら, と, ば 」 구문에는 없는 「なら」만의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3) 시간적 특징에 있어서 「なら」는 전건과 후건의 시간적 관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① 「 たら, と, ば 」 구문은 항상 「전건 → 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내지만, 「なら」는 「전건→후건」뿐만 아니라,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도 나

타낼 수 있다.

- ② 「なら」가 「ル형」과 「夕」형에 각각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과 「전건→후건」, 「후건 → 전건」의 시간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로 인해 「なら」구문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였다.

4) 「なら」구문만이 가지는 여러 특징이 있었다.

- ① 시간관계가 「후건 → 전건」으로 나타나는 조건문에서는 「なら」를 사용하면 적격문이 되지만 「たら, と, ば」를 사용하면 비적격문이 된다.
- ② 반사실 조건문 중 전건이 사실인 반사실 조건문에서는 「なら」를 사용하면 적격문이 되지만 「たら, と, ば」를 사용하면 비적격문이 된다.
- ③ 전건의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고 시간관계가 「후건 → 전건」이며, 후건의 의미가 명령일 경우 「なら」를 「たら, と, ば」로 바꾸어 쓰면 비문이 되거나, 원래의 의미와 달라진다.
- ④ 「どうせ~なら」의 구문에서 「なら」대신 「たら, と, ば」를 쓰면 비문이 된다.
- ⑤ 자연현상, 습관, 길안내, 기계조작 설명, 수식 관계 등을 나타내는 일반 조건문에서는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 ⑥ 전건과 후건 모두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는 조건을 사실 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 조건에서는 「と, たら」대신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たら, と, ば」구문에는 없는, 「なら」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조건표현 「なら」의 의미·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용법을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교수법 및 수준별 교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해 두겠다.

참고문헌

<예문출전>

- 「派遣の品格」 NHK 日本ドラマ シナリオ
「ガリレオ」 NHK 日本ドラマ シナリオ
「のだめカンタビレ」 NHK 日本ドラマ シナリオ
「朝日新聞」 <http://www.asahi.com/> 참조

<외국문헌>

<단행본>

- 久野暁 (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益岡隆志・田窪行測 (1989),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 (1993),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仁田義雄編 (1995), 『複文の研究(上)』, くろしお出版
宮島達夫・仁田義雄 (1996),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 くろしお出版
鈴木忍(2000),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③』, 凡人社
有田節子・前田直子・蓮沼小子(2001), 『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野田尚史・益岡隆志・佐久間まゆみ・田窪行則(2002), 『複文と談話[日本語文法4]』
岩波書店
有田節子(2007), 『日本語条件文と時制節性』(2007), くろしお出版

<사전류>

- 日本語教育学会編(2006),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논문>

- 豊田豊子 (1985), 「と、ば、たら、なら」 『日本語教育』(56号), 日本語教育学会
蓮沼昭子 (1985), 「なら」と「トスレバ」 『日本語教育』(56号), 日本語教育学会

- 仁田義雄 (1987), 「条件づけとその周辺」 『日本語学』 (9月号), 明治書院
- 鈴木義和 (1993), 「「ナラ条件文」の用法」 『園田語文』 (7号), 園田学園
- 藤城浩子・宗意幸子 (1994), 「(ノ)ナラの意味と特徴」 『三重大学日本語学・文学』, 三重大学
- 鈴木義和 (1994), 「条件各論-バ、ト、タラ、ナラ」 『日本語学』 (8月号), 明治書院
- 田中寛(1994), 「条件表現と基本文型」 『日本語学』 (8月号), 明治書院
- 山梨正明(1994), 「条件文の表現機能と言葉の認識」 『日本語学』 (8月号), 明治書院
- 油谷幸利 (1995), 「仮想の「なら」と伝聞・様態の「なら」」 『愛知教育大学研究報告』 (44), 愛知教育大学
- 赤羽根義章 (1996), 「接続助詞と接続語「ソウスルナラ、ソレナラ、ダッタナラ、ナラ」」 『宇都宮大学教育学部紀要人文学科論集』 (31号), 宇都宮大学教育学部
- 鄭 相美 (2004), 「「文脈におけるナラの機能に関する一考察」—話題提示としての機能を中心に—」 『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研究』, (5号)

<한국문헌>

<논문>

- 이은미 (1996), 「일본어 조건표현에 대하여」 『일본어문학』 (제2집)
- 김경혜 (1999), 「日本語と韓国語の条件表現の対照研究」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 김은희 (1999), 「조건형식「なら」의 용법」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Usage of 「なら」 in Conditional Expression of Japanese Language

Kang Yun-yo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Directed by Prof. Kim Seung-han

There are 「たら, と, ば, なら」 in the forms of showing conditions in Japanese language. These have the semantic characteristic peculiar to each, and is simultaneously used with similar usage, thereby giving confusion to learners of Japanese language. Also, in case of the majority, four of these conditional expressions are corresponded to 「~myeon」, thus learners have regarded the conditional expressions in Japanese language as one of very confused learning item.

However, the conditional type 「なら」 has different usage from the sentence structure 「たら, と, ば」, which can be said to be able to allow the counterpart's utterance or situation to be condi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usage peculiar to this 「なら」, clarified the central meaning in 「なら」, and examined about its characteristics.

For this, in Chapter 2, the characteristics of conjunctive form in 「なら」 were examined. In Chapter 3, the usage of 「なら」 was examined centering on a subjunctive conditional and a counter-factual conditional. Particularly, here, when using 「なら」, it becomes the well-formed sentence. However, when using 「たら, と, ば」 in other conditional expressions, it becomes the ungrammatical sentence.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nly in 「なら」 were considered. And, in Chapter 4, by examining a case of being unable to use 「なら」, the restrictions in 「なら」 were examined.

1) 「なら」 is available for conjunction each in verb, adjective ㄱ, adjective ㄴ,

「noun+だ」, 「ル form」 and 「タ form」 in case markers. Still, when 「なら」 is connected to adjective ナ and 「ル form」 in 「noun+だ」, it is connected to the stem in adjective ナ. And, it connects to 「noun+だ」 with omitting the auxiliary verb だ. Also, the form that 「タ form」 connects to 「なら」 can be said to be characteristic peculiar to 「なら」, which can not be seen in a conditional sentence of 「たら, と, ば」.

2) In the semantic usage in 「なら」, 「なら」 is a conditional sentence like 「たら, と, ば」. However, it had the characteristic that can have condition as the information on the side of listener such as a matter of being able to predict through the counterpart's utterance or the counterpart's looks or situation. Also, the general counter-factual conditional has the modus as a matter contrary to reality, thereby indicating regret, repentance, and resentment in consequent. However, 「なら」 could indicate the counter-factual conditional that has modus as a matter, which is a fact. The counter-factual conditional, in which modus is a fact, can be said to be characteristic peculiar to 「なら」, which doesn't exist in the sentence structure of 「たら, と, ば」.

3) As for the characteristic in time, 「なら」 could be known a fact that the relationship of time between modus and consequent is relatively free. The sentence structure of 「たら, と, ば」 always indicates the relationship of time in 「modus → consequent」. However, 「なら」 can indicate even the relationship of time in 「consequent → modus」 as well as 「modus → consequent」.

4) As for the peculiar usage and restrictions to 「なら」, 「なら」 can be used in the conditional that consequent precedes modus, and in the counter-factual conditional that modus is a fact. Also, the verb in modus indicates movement, and the relationship of time is 「consequent → modus」. When the meaning of consequent is imperative, it becomes the ungrammatical sentence, or the original meaning becomes different given using by changing 「なら」 into 「たら, と, ば」. In the sentence structure of 「どうせ～なら」, it becomes the ungrammatical sentence given using 「たら, と, ば」 instead of 「なら」.

However, contrary to this, it becomes the ungrammatical sentence when using 「なら」 in the general conditional, which shows causality of being generally established, and in the factual conditional, which shows a fact of having happened once in the past both for modus and consequent.